



즉시 배포용: 2018 년 8 월 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정부 기관에 오네이다 및 기타 주에서 **KKK** 단 및 백인 우월주의 관련 자료가 배포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

아울러, Cuomo 주지사는 증오범죄대책팀에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증오 범죄와 맞서 싸우는 뉴욕 주민을 돕도록 지시

Cuomo 주지사: “워싱턴의 **Trump** 대통령과 공화당이 뿌린 분열과 증오의 씨앗이 전 미국에 뿌리내렸지만, 뉴욕주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분열과 증오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 뉴욕주에 뿌리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카운티에서 **KKK** 단이 끔찍한 인종 차별주의 자료를 배포한 사건을 수사하고, 뉴욕주는 차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주립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KKK 단)과 기타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회원 모집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네이다 및 기타 카운티의 백인 우월주의 자료 배포 사건을 수사하여 그 출처를 특정하고, 해당 자료가 증오 범죄를 조장 및 선동하기 위해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역 순찰을 늘릴 것을 주립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주립경찰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 및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증오 범죄에 대항하는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발족하고, 뉴욕 주민들이 증오 범죄를 신고하고 또 이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Trump** 대통령과 공화당이 뿌린 분열과 증오의 씨앗이 전 미국에 뿌리내렸지만, 뉴욕주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분열과 증오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 뉴욕주에 뿌리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카운티에서 **KKK** 단이 끔찍한 인종 차별주의 자료를 배포한 사건을 수사하고, 뉴욕주는 차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주립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주는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우고 평등과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편견이 동기로 작용한 위협, 괴롭힘 및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창설하였습니다. 뉴욕주립경찰이 운영하는 해당 대책팀에는 증오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유행 범죄,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카운티 리더, 지방 검사, 교육청 리더, 지역 경찰 부서,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주립경찰 수사

주지사는 최근 오네이다 카운티를 비롯한 여러 뉴욕주 카운티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및 KKK 단 자료 배포 사건을 수사하여 그 출처를 특정하고, 해당 자료가 증오 범죄를 조장 및 선동하기 위해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역 순찰을 늘릴 것을 주립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수사의 일환으로, 주립경찰은 지역 경찰과 카운티 보안관실을 지원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늘리며, 사건 수사 중 인권국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립경찰은 뉴욕주 정보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와 사건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합니다. 뉴욕주 정보 센터는 뉴욕주 기술 융합 센터로, 증오 범죄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뉴욕주 범죄 정보를 모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립경찰은 해당 범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의 사법집행기관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범죄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뉴욕주 범죄분석센터(Crime Analysis Centers) 네트워크 기금 관리도 담당합니다. 주정부는 오네이다 카운티의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Mohawk Valley Crime Analysis Center)를 비롯하여 센터 9 곳을 지원하는 데 약 7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네트워크 지도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는 현지 사법집행기관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증오 범죄 수사에 추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증오범죄대책팀은 뉴욕 주민이 증오 범죄를 신고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증오 범죄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발족합니다. 증오범죄대책팀은 무료 직통전화로 신고하거나 81336 번에 “HATE”라고 문자를 보내 신고하는 등, 주정부에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책팀은 오네이다 카운티 마을 회관을 개방하여 지역의 현황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권리를 교육하며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들께서는 인권국(DHR)의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81336 번에 "HATE"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